

댄스·힙합...10대들 오디션 열풍

‘댄싱하이’ ‘크리에이브틴...’ 등
지상파 앞다퉂 차세대 아이돌 양성
엠넷 ‘고등래퍼’ 10대 영향력 증명

역시 아이돌 시장은 10대들이다. 데뷔부터 활동까지 모든 것이 10대의 마음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지상파들도 한동안 뜸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을 재개하면서 아예 명확하게 10대를 내세우는 모양새이다.

MBC TV는 오는 11월 첫째 주 ‘크리에이브틴(틴에이지) 언더나인틴’을 선보인다고 예고했다. 랩, 보컬, 퍼포먼스 3개 분야로 나눠 오디션을 진행하고 각 분야 최고의 10대를 선발해 차세대 아이돌을 탄생시키는 게 목표이다.

10대들에게는 방탄소년단 등 세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 가운데 제작진은 이달 열릴 국내 오디션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의 오디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조금 이른 9월 7일 처음 방송하는 KBS 2TV ‘댄싱하이’는 10대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미 3112명 10대 댄서가 지원했다고 알려진 만큼 방송 전부터 열기가 후끈하다.

‘댄싱하이’ 측은 여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10대들의 댄스 배틀에 주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원 장르도 K-POP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락 등 스펙트럼이 넓어 색다른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치로 저스트 절크, 리아킴 등 ‘최고의 댄서’들이 나선 것도 눈에 띈다.

SBS TV는 바라이어티에 경연 방식을 결합한 ‘방과 후 힙합’을 8월 중 선보인다. 10대, 그리고 10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힙합을 소재로 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인 ‘방과 후 힙합’은 MC와 래퍼들이 전국 곳곳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며 10대 이야기를 랩으로 들어보는 내용이다. 냉정하게 랩 실력을 겨루는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10대들의 다양한 고민과 사연에 집중하는 게 차별점이다. 함께할 래퍼로는 이미 ‘함함게 아이돌’ 키썬과 목직환 존재감의 킬라그램이 낙점됐다.

10대로 타깃 구경을 줬던 오디션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엠넷 ‘고등래퍼’를



◀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엠넷 ‘고등래퍼’, MBC ‘크리에이브틴 언더나인틴’, KBS2TV ‘댄싱하이’

통해서다.

참가자를 10대로 한정하고, 심지어 장르도 힙합으로 국한해 ‘잘 될까’ 하는 의문을 낳았지만, 결과적으로 10대들에게 큰 호응을 끌어내며 ‘시존제로 군하기’에 성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양홍원(영비), 최하민, 김선우, 김하은, 배연서, 이병재 같은 원석을 발굴해내는 데 성공했으며, 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양홍원의 십자가 귀걸이 등 참가자들의 패션까지 따라 하는 현상까지 일었다.

이렇듯 10대를 겨냥한 오디션이 흥행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10대의 ‘능동성’이 꼽힌다.

엠넷 관계자는 5일 “10대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영향력 있는 팬덤을 형성한다.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거나 SNS로 공유하고, 응원을 독려하는 등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선발 과정을 보여주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10대들의 관심은 프로그램부터 데뷔 이후까지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다. 10대에서 시작해 전 연령대에서 화제를 모은 ‘고등래퍼 2’ 등의 성공으로 10대들의 영향력, 이들을 메인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고등래퍼’ 시즌3도 꼭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과 함께2’ 개봉 5일만에 600만 관객 돌파

역대 최고 ‘명량’ 기록 돌파 기대

지난 1일 개봉한 영화 ‘신과함께-인과 연’(이하 신과함께2)〈사진〉이 개봉 5일째 6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작성하며 주말 극장가를 휩쓸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주말 이틀(4~5일)간 276만9024명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619만4048명을 기록했다.

4일 하루만 보면, 146만6416명을 불러모아 영화 사상 하루 최고관객 동원기록을 갈아치웠다. 종전 이 부문 신기록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133만3310명이었다.

5일에도 130만2681명을 불러들여 개봉 후 5일 연속 100만 관객 행진을 이어갔다.

영화는 개봉 7일째 500만 명을 동원한 전편보다 훨씬 빠른 흥행속도를 보여 전편이 기록한 최종 관객 수(141만 명)를 넘어 역대 최고 흥행작인 ‘명량’(1762만 명)의 기록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과함께2’는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둔 저승 삼차사가 그들의 천 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이승과 저승, 과거를 오가며 그들 사이에 얽힌 인연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연합뉴스

김구라·김성주, ‘공동공부구역 JSA’ 진행

남·북 청춘 모여 통일 토론

E채널 내달 11일 첫 방영

E채널은 오는 9월 11일 밤 10시 처음 선보일 예능 ‘수다로 통일: 공동공부구역 JSA’의 MC로 방송인 김구라와 김성주가 낙점됐다고 3일 밝혔다.

‘공동공부구역 JSA’는 통일이라는 목적인 주제 아래 즐겁고 가볍게 토론하는 토크쇼이다. ‘수다로 통일’이라는 모토 아래 남과 북의 청춘 남녀가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통일에 대비하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다.

김구라와 김성주는 ‘만약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이라는 화두로 남과 북을 아우르며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적대적소의 상황에 맞는 진행으로 출연자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구라



김성주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생결단 로맨스 (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너도 인간이니?(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0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가자! 낭만 고향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2018 자카르타 팔렐방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00 2018 자카르타 팔렐방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00 2018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15 양코리 UHD 특선다큐 라이프 오브 독	00 뉴스브리핑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00 프리파라 3 30 뽀뽀뽀 모두야 놀자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1 대 100(재)	00 5 MBC 뉴스 20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 (재)
[7]	00 KBS 뉴스 7 35 전라도 매력청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 대 100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너도 인간이니?	00 사생결단 로맨스	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40 여름특선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엄마 아빠는 외계인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독립영화관 반도에 살어리랏다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띠띠뽀 띠띠뽀 08:00 덩동댕 유치원1~2 08:30 몬카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뽕뽕뽕 뽕뽕로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죽은지 닥침과 양배추 생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3:00 다크 오늘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3:40 뽕치미(재) 14: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파파리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댕 유치원1~2 17:15 마사와 곰	17:30 띠띠뽀 띠띠뽀(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1~5 19:00 미니특공대 X 19:30 EBS 뉴스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20:40 세계테마기행 〈이탈리아 산골 기행 2부 티롤 왕국의 후예들〉 21:30 한국기행 〈여름,오감기행 2부 시각기행, 소년의 꽃차다방〉 21:50 EBS 다크프라임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55 뽕치미 24:45 지식채널e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7일(음 6월 26일 辛未)

36년생 전제적인 판세에 영향을 줄만한 정도는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 48년생 흔적만 보이도 가히 짐작할 만하다. 60년생 당연한 값음이 있겠다. 72년생 상호 관계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84년생 외형에 현혹되다 보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50, 90	42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54년생 노고를 가장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동세이니라. 66년생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78년생 경계해야 할 때다. 90년생 화가 북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1, 18
37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 되리라. 49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사국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 61년생 봉합하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73년생 길사는 별로 없겠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85년생 지연되기는 하나 목적은 달성 되겠다. 행운의 숫자 : 81, 51	43년생 지연 되어 왔던 일의 물꼬가 트이리라. 55년생 과유불급이라 하였으니,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67년생 집착을 버려야만 새로운 꿈을 도모할 수 있다. 79년생 전혀 의식할 필요 없다. 91년생 있을 때 잘 지켜야지 없어지고 나면 공허하리라. 행운의 숫자 : 47, 28
38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50년생 설명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봉합 될 가능성이 높다. 62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74년생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리라. 86년생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52, 47	44년생 지난날의 공적이 인정되어 호평을 받게 된다. 56년생 열정과 집착은 엄격히 구분 되어야만 한다. 68년생 조목조목 따져 볼 일이다. 80년생 처음부터 아예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맞다. 92년생 분산된다면 핵심에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행운의 숫자 : 33, 89
39년생 최소한 한 번의 기회는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니 놓치지 말라. 51년생 길사로 연결되며 발전 된 양상을 띤다. 63년생 가닥은 잡히겠지만 얼마든지 변수는 있다. 75년생 광범위하게 유익한 환경에 놓일 것이다. 87년생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10, 24	45년생 재수가 있는 날이다. 57년생 양면성을 피고 있어서 인식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69년생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시야의 확보가 절실하다. 81년생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93년생 벼락 치게 서둘러야만 겨우 이뤘을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74
40년생 주변에 관심을 갖자. 52년생 한 번 뱀은 팔은 주워담을 수 없는 법이다. 64년생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된다. 76년생 상대의 대응에 따라서 수단을 달리 강구할 일이다. 88년생 정도를 조절하면서 현안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56, 70	34년생 필요로 한다면 실제적인 이행이 있어야 한다. 46년생 불안정한 구상은 실패를 이끄는 실타래가 될 뿐이다. 58년생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70년생 미련을 남길 수밖에 없는 판국이다. 82년생 일관되게 진행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루리라. 행운의 숫자 : 66, 96
41년생 기대 했던 바보다 효과가 배가하게 될 것이다. 53년생 성과에 흠뻑 취해서 매우 즐거워하는 형상이 비현다. 65년생 확인과 검토는 오류를 방지할 것이다. 77년생 구구일모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 89년생 쉽게 오해할 수도 있는 환경이다. 행운의 숫자 : 71, 97	35년생 종된 것은 일단 차치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주목하자. 47년생 지나치다면 판국을 깨면서 해로움만 더한다. 59년생 더 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71년생 자기 모순에 빠질 수도 있는 정황이다. 83년생 돌발 상황이 속출하면서 정성없겠다. 행운의 숫자 : 62, 91